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장하준의 도전

《사다리 건너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으로 주류 경제학계에서 주목하는 비주류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신작이다. 이를 두고 노엄 촘스키는 “장하준의 경고는 무자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책에서 줄곧 이론 대신 현실을, 모델 대신 사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론의 세계이며 모델의 세계이자 계량화된 세계인 경제학으로는 현실에 기반한 공정한 세계 경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대, 신자유주의만이 대안처럼 이야기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장하준의 주장은 미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 주목해 볼만하다.



다산 정약용의 맑은 생각을 배우는 길

공부에 관한 방법을 정리한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의 저자 정민 교수가 이번 에 삶의 자세 전반에 관한 성찰과 충고를 담은 《다산어록청상》을 내놓았다. 책 제목의 ‘청상(淸賞)’은 ‘맑게 감상한다’라는 의미다. 경세(警世), 수신(修身), 처사(處事), 치학(治學), 독서(讀書), 문예(文藝), 학문(學問), 거가(居家), 치산(治産), 경제(經濟)의 열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산의 굴곡진 삶과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 냈다. 정민 교수의 말대로 다산의 사상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은 갈수록 바빠만 진다. 사람들은 일에 팔려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 이 와중에 긴 시간을 건너와 깊은 울림을 주는 큰 어른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이요 작은 기쁨”이다. 저자가 새벽마다 퇴계의 편지를 한 편씩 읽은 후 하루 종일 글을 음미하고 저녁에 단상을 적었던 이 다산의 어록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감상한다면 우리의 생도 더욱 맑아지리라.



문화인 한창기에 대한 오마주

잡지를 조금 안다 싶은 사람들은 《뿌리깊은나무》를 기준으로 한국 잡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이야기한다.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담았던 말과 글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한창기가 창간하고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였던 《배움나무》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에 썼던 글들을 모아 세 권의 책을 선보였다. 전통과 민속에 관한 글들은 엮은 《샘이깊은물의 생각》, 문화 시평을 중심으로 엮은 《배움나무의 생각》, 언어에 대한 한창기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중심으로 엮은 《뿌리깊은나무의 생각》은 전통과 문화, 그것에 담긴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일찍이 눈뜬 문화인 한창기에 대한 오마주와 같다. 지킴과 변화에 대한 문화적이고 인문적인 성찰을 한 사상가이자 문화인으로서의 한창기의 면모를 오롯이 살려낸 작품들이, 3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되살려도 읽고 또 읽어도 아까움이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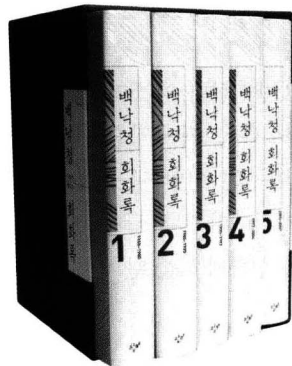
글 장동석 기자



40년간 지성인들과 나눈 지성사의 기록

계간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한 간행위원들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1968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참여한 좌담, 대담, 토론, 인터뷰 등을 엮은 회화록(會話錄)을 출간했다. 당시 31세였던 백낙청 교수가 문단의 대선배들과 마주해 사회와 문학의 연관성을 적극 옹호하고, 일제하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1권부터 2005년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로 활동한 이래 각종 인터뷰와 대담을 담은 5권까지, 우리 사회의 쟁점적인 현안과 담론이 백낙청 교수의 업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40년 동안 백철, 김동리, 선우희, 박현채 등 작고인사를 포함해, 리영희, 강만길, 고은, 김지하, 이매뉴얼, 월러스틴, 프레드릭 제임슨 등 133명과 나눈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현대사와 문학사의 쟁점에 대응해 온 지성인들의 면모를 체감할 수 있다. **★**

글 정윤희 기자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 부키 | 383쪽 | 값 14,000원

《배움나무의 생각》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샘이깊은물의 생각》 한창기 지음 | 윤구병 · 김형윤 · 설호정 엮음 | 각 권 350쪽 내외 | 각 권 값 16,000원

《다산어록청상》 정민 지음 | 푸르메 | 276쪽 | 값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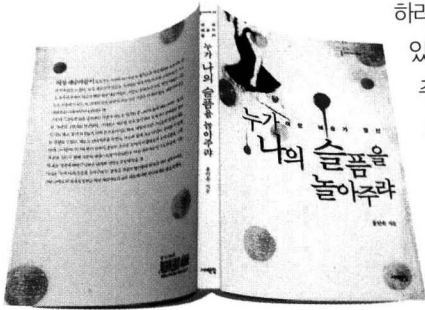
《백낙청 회화록》(전 5권) 백낙청 회화록 간행위원회 엮음 | 창비 | 1권 584쪽, 2권 564쪽, 3권 524쪽, 4권 576쪽, 5권 664쪽 | 각 권 값 28,000원(1질 140,000원)

시대와 분야를 초월한 여성 예술가의 삶 조명

남성 중심 평가의 그늘에 가려 예술적 재능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한다. 황진이, 김명순, 나혜석, 백남순, 최승희, 복혜숙 등 문학, 미술, 무용, 음악 예술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활동했던 여성들의 면면을 살핀다. 특히 한 인물의 삶에 국한하지 않고 각

인물별로 동료로 또는 스승으로 동시대의 제약을 극복하려 노력했던 주변인을 함께 다루고

있다. 남성의 틀러리가 아닌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의 시선과 맞서고, 개인으로서의 삶과 재능에도 충실하려 했던 예술가들을 향해 저자는 "예술가의 삶은 작품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체성 찾아가는 10대와 그들을 위한 소설

독자들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성인 소설 사이에서 과연 '청소년용' 소설이 무엇일까 의문을 갖듯이 작가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쓴 일곱 편의 단편 소설을 담았다.

수시 합격한 고3 학생이 품고 있는 생각과 그가 행하는 나머지 학창생활,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로 괴로워하는 평범한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이 나오는가 하면

전교조 합법화 운동에 나서서 80년대 운동권 고등

학생의 모습 등 내외적 갈등과 변화 속에서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글 송보경 기자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소설은 한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낯설고 황량한 마을 '서리'에 발령 받은 '유' 이야기로 시작된다. 살아 있는 모든 감각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삶의 진실한 이면과 마주서는 그곳에서 '유'는 좌충우돌을 거듭하며 혼돈에 휩싸이고 결국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서리의 모든 것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결국 삶은 허무한 신기루처럼 또다시 사려져버린다.

작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순과 역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잠언적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 질문한다. 언뜻 가벼워

보이는 일상에서 시작해 점점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으로 빠져드는

전개 방식은 이승우식 '소설 미학'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주랴》 홍인숙 지음 | 서해문집 | 270쪽 | 값 10,900원

《개지기 쉬운 깨지지 않을》 김혜진 외 | 바람의아이들 | 216쪽 | 값 8,000원

《그곳이 어디든》 이승우 지음 | 현대문학 | 305쪽 | 값 9,800원

《조용헌의 소설》(전2권) 조용헌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1권 284, 2권 276쪽 | 각권 값 10,000원

'도청지설' (盜聽之說)에 담긴 참된 성찰

전기수 조용헌이 들려주는 216편

의 작은(小) 이야기(叢).

물질문명을 뒤로한 채 조

용히 산 속에 숨어 지내는

기인들의 특별한 사연, 산과

계곡, 집터에 얽힌 이야기들을

담았다.

저자는 2500년 전 길거리에서 들

은 이야기를 문자로 적어내던 '소설

가(小說家)의 기원을 밝히면서 소설의

본령은 여론, 재미, 정보(교양)에 있다고 역설한다. 책에 담긴 내용 상당 부분이

그런 소설의 기원에 부합하는 '도청지설' (盜聽之說)이다. 1,050자로 이루어진 짧

은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의 예리한 통찰력과 삶에 대한 참된 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다. **▶**



글 이주연 기자